

## 여정 1: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남<sup>1)</sup>

주님!

처음 당신은 제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제 육신을 땅바닥에 내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 교회를 파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 투철한 사명감으로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테파노가 돌팔매질당해 죽을 때도

저는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마을에 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게다.”

빛이 사라지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먹을 수도

물조차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온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는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앞에 놓인 긴 여정에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

1) 사도 8,1-3; 9,1-19 참조.

## 여정 2: 예루살렘에서 겪은 배척<sup>2)</sup>

주님! 예상한 대로 제자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무진 애를 써 보았지만  
제 과거를 낱알이 아는 제자들은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는 했지만 당신 제자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무척 낙심했습니다.  
절망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당신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뜻밖에 바르나바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사도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당신 제자들을 만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제 앞에 나타난  
당신의 빛과 당신이 들려주신 말씀과  
그 후 저의 변모와 행적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고  
몇몇 사람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저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크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공생활을 함께 한 제자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제 안에 생생하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벗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영적 스승이자 진실한 벗,  
바르나바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처음 빛으로 오시고, 하나니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르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은인인 그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가 바르나바의 너그러움과 원만함,  
타인과 협력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제 열정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율법에 관해 그들과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할례·정결례·금식 같은 율법을  
철통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를 극도로 증오해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교회 신자들이 저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당신의 말씀을 되새기며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정녕 평화를 알았더라면!”

2) 사도 9,20-31; 갈라 1,18-19 참조.

### 여정 3: 타르수스에서 심한 고독과 변민들<sup>3)</sup>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는 주님!  
고향 타르수스에 돌아온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과 속에서 묵묵히 기도드리며  
당신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속에서  
제 자신의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오류는 바로 자신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알았고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생명의 힘을 느꼈으며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때 극악하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박해했던  
제가 그와 같은 열성으로 당신을 전하려 했습니다.  
제 탁월한 언변과 능력만 믿고 당신을 전하려 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당신의 빛으로 한껏 우쭐해진 탓에  
미처 그 오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빛으로 제게 나타나셨기에  
당신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당신의 탁월한 사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게 닥친 고독과 시련이야말로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게 회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  
당신은 7년이라는 긴 시련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불기둥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온전히 당신의 종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당신과 첫 만남은  
제 회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저의 회심이 정련되어 참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신은 제게 긴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도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의 신비로운 계획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아버지 하느님이시며  
저는 당신을 통한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

3) 사도 9,30 참조.

#### 여정 4: 바르나바와의 결별<sup>4)</sup>

주님!  
다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영적 스승이자 좋은 친구이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바르나바와 결별을 했습니다.  
저는 바르나바에게 선교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복음을 전파한 곳을 다시 돌아보고  
그곳 형제들을 방문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바르나바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는 마르코라는 사촌 동생 요한과 함께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 일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시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바르나바에게 말했습니다.  
팜필리아에서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일로 바르나바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르나바는 공동체와 작별하고  
마르코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습니다.

바르나바는 교회 공동체 원로의 한 사람이자  
안티오키아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늘 힘이 되어주고 저를 사도직 활동으로  
이끌어 준 소중한 스승이며 벗입니다.  
바르나바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저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을 때도  
바르나바는 서슴없이 제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일일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사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타르수스에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초대해 준 사람도 바르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친 원칙만 고집해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오랜 우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

4) 사도 15,36-40 참조.

그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의 실수로 영적 은인인  
바르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이 결별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바르나바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가 윗사람인데도 제 감정에 휩싸여 무작정 대들었습니다.  
그의 상심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마르코를 데리고 고향 키프로스로 돌아가던  
바르나바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안의 악은 선을 지향하는 제 의지를 꺾고  
의기양양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부단히 선을 지향해도 악은 항상 그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 악은 저를 패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자아는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하지만  
또 다른 자아인 악은 참된 승리를 싫어합니다.  
바르나바를 떠나보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주님!  
제 안의 비관과 절망을 씻어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일로 저는 자신의 나약함, 악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되찾고자 합니다.  
비록 바르나바는 떠났지만  
다시 선교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